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제50호 자랑스런 안전인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
이재실 안전과장



안전이란 한 철 화려하게 피고 지는 벚꽃이 아닌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은 것!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계절. 쌍계사의 십리벚꽃길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다. 섬진강과 지리산이 위치한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이곳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이재실 안전과장을 만나 그의 안전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내일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는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12.6%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 7호기와 8호기의 건설을 통하여 앞으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는, 이곳 하동화력에는 약 600여명의 근로자가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부지만 해도 80만평이 넘는다.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난 1월에 무재해 7배를 달성하였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재실 안전과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84년에 한국전력(호남발전소)에 입사하여 발전소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이후 15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99년, 이곳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본부에서 안전관리자로 발령을 받아 안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42세, 불혹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남아 책을 펴고, 집에 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안전에 대한 개념들을 독학으로 쌓아갔다. 처음 안전에 대한 일을 권유받았을 때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갈망해오던 차에 좋은 기회다 싶었다고 한다. 또 87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할 때 가까운 근로자를 재해로 잃은 경험이 있는 그에게 있어서 안전이란 말은 단순히 허공을 떠도는 뜬 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었다. 이제 어느덧 8년차 안전관리자가 된 그는 처음 안전을 접할 때는 아무것도 안보이더니 차차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며 겸손해 한다.

이곳 현장은 발전소의 특성상 설비에 대한 보수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전이나 분해물에 의한 타격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감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이재실 안전과장은 현장 작업이 있을 시에는 항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에 안전 교육을 그 곳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사례를 들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근로자들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안전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재실 안전과장. 비록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무재해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재근 기자>